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8.05



코스닥 글로벌 상장법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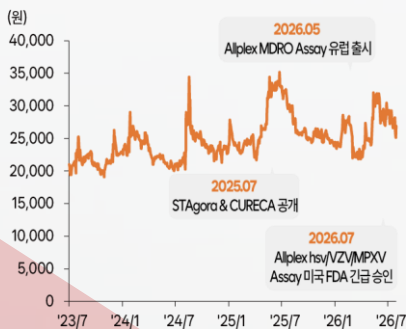
씨젠 (096530)

코로나 이후의 씨젠, 비호흡기로 다시 쓰는 성장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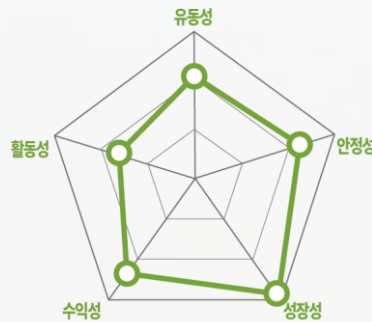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독자적인 멀티플렉스 PCR 기술을 기반으로 호흡기, 소화기(GI),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성매개(STI) 감염 및 의료관련감염 & 다제내성균까지 검사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Allplex 시약에서 자동화 장비와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중
- 2025년 비호흡기 시약 매출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15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GI, HPV, STI가 각각 34.9%, 37.1%, 36.3% 성장하며 특정 감염병 유행보다 반복적인 검사 수요에 기반한 사업구조 전환을 확인
- 2026년 실적은 매출액 5,244억원(+10.6% YoY), 영업이익 765억원(+121.4% YoY), 영업이익률 14.6%(전년 7.3%)로 추정되며, 비호흡기 시약 중심의 매출 상승과 원재료 내재화 및 비용 효율화가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익 증가를 견인할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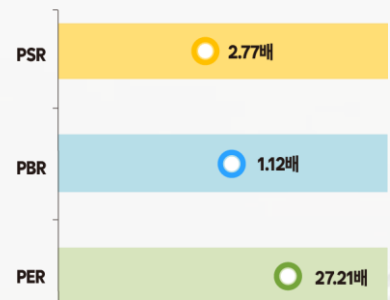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신드로믹 PCR에서 자동화 & 데이터로 확장하는 분자진단 기업

동사는 독자적인 DPO, TOCE, MuDT 및 3 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나의 검체에서 다수의 병원체를 동시에 검출하는 신드로믹 PCR 진단시약을 개발 및 판매하는 글로벌 분자진단 기업. 주력 제품인 'Allplex'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뿐 아니라 소화기 감염(GI), 성매개감염(STI),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약제내성 등으로 검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진단시약과 핵산 추출시약, 검사 자동화 장비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구조 보유. 중장기적으로는 PCR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CURECA',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STAgora' 및 기술공유사업을 통해 기존 시약 중심 사업을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결합된 분자진단 플랫폼으로 확장 목표.

비호흡기 시약의 구조적 성장이 실적 안정성을 높인다

동사는 GI, STI, HPV를 중심으로 한 비호흡기 신드로믹 시약의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음. 2026년 1분기 비호흡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했으며, 제품별로는 GI 34.9%, HPV 37.1%, STI 36.3%의 고성장을 기록해 호흡기 제품의 계절적 매출 감소를 상쇄. 비호흡기 검사는 특정 감염병의 일시적 유행보다 반복적인 검사 수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매출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유럽 내 광범위한 IVDR 인증 포트폴리오와 현지 영업망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및 기존 고객의 검사 메뉴 확대가 지속될 경우 반복 시약 매출과 영업 레버리지가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26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회복, 기업가치 상향 가능성 기반 마련

2026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5,244억원(+10.6% YoY), 영업이익 765억원(+121.4% YoY), 지배주주순이익 883억원(+82.8% YoY)으로 전망하며, 영업이익률은 2025년 7.3%에서 14.6%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 비호흡기 시약의 두 자릿수 성장, 고수익 시약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 원재료 내재화 및 판관비&연구개발비 효율화가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익 증가를 견인할 전망. 주주총회에서 제시한 약 549만주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이행될 경우 주주환원 강화가 더해지면 기업가치가 추가로 상향될 잠재력 보유.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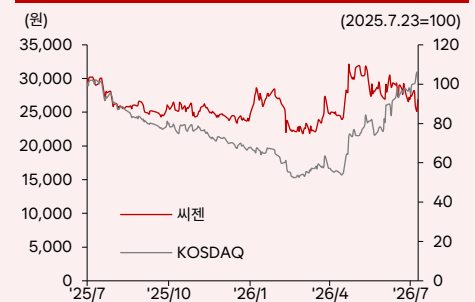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8,536	3,674	4,143	4,742	5,244
YoY(%)	-37.7	-57.0	12.8	14.5	10.6
영업이익(억원)	1,965	-301	-165	345	765
OP 마진(%)	23.0	-8.2	-4.0	7.3	14.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821	7	-88	483	883
EPS(원)	3,488	13	-168	924	1,690
YoY(%)	-66.1	-99.6	적전	흑전	82.8
PER(배)	7.8	1,787.7	N/A	25.7	15.9
PSR(배)	1.7	3.3	2.9	2.6	2.7
EV/EBITDA(배)	3.8	22.9	14.9	7.5	6.7
PBR(배)	1.2	1.2	1.2	1.2	1.3
ROE(%)	16.3	0.1	-0.9	4.8	8.5
배당수익률(%)	2.9	3.5	3.5	4.2	3.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3)	26,700원
52주 최고가	32,000원
52주 최저가	21,850원
KOSDAQ (8/3)	737.35p
자본금	261억원
시가총액	13,94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52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3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11억원
외국인지분율	18.36%
주요주주	천종윤 외 26 인 28.7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0	-4.0	-8.1
상대주가	7.1	49.1	-3.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 이익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기업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다양한 질병의 PCR 진단을 위한
시약 및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자진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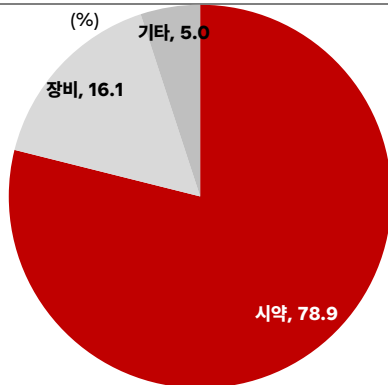
씨젠은 2000년 설립된 분자진단 기업으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동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글로벌 분자진단 MDx(Molecular Diagnostics) 기업으로, 독보적인 PCR 기술 및 고객 맞춤형 분자진단 올인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PCR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 시약 사업과 장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사는 시약 사업과 관련해 신드로믹 정량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기술, DPO(Dual Priming Oligonucleotide), TOCE (Tagging Oligonucleotide Cleavage and Extension), MuDT(Multiple Detection Temperatures) 등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5개의 질병 원인을 한 번의 검사로 분석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호흡기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성매개 감염, 소화기 감염 진단시약 등 검사군을 확장하여 다양한 질환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높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90여개 지역의 대리점과 거점별 해외법인을 통해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했다.

진단 장비는 이러한 신드로믹 PCR 진단의 자동화 시스템이다. 분자진단에 필요한 전처리, 검체 추출, 검사,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외부에서 도입한 진단장비를 재가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사는 'STARlet', 'NIMBUS', 'SEEPREP32', 'CFX96Dx', 'VCMS' 등 각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장비로 검체의 전처리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모듈형 통합 시스템 'CURECA'를 개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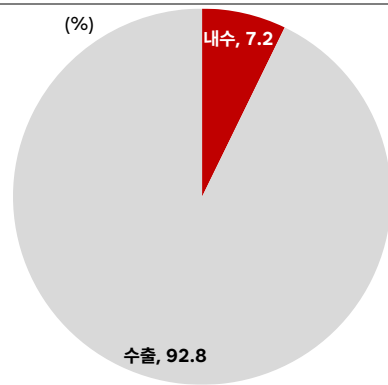
한편 동사는 'STAgora', 기술공유사업 등의 중장기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STAgora'는 글로벌 PCR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또한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시약 개발 자동화 시스템 'SG OneSystem'을 구축하고, 각국의 파트너가 해당 기술을 이용해 현지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 시약을 직접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Hylabs(이스라엘), Werfen(스페인)과 기술공유 계약을 체결해 2025년 2개의 현지 신설법인을 출범했고, Microsoft(미국), Springer Nature(독일) 등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본업인 신드로믹 진단시약 사업과 차세대 사업인 'CURECA', 'STAgora' 연구개발을 병행하며 진단 검사 전반의 자동화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매출 비중 (2025년 연결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내수/수출 비중 (2025년 연결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2000~2015	2016~2024	2024~
2000.09 법인 설립 2010.09 코스닥 상장 2011.01 TOCE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2011.10 DPO 기술 유럽 특허 등록 2012.01 DPO 기술 미국 특허 등록 2012.03 mTOCE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2013.03 씨젠의료재단과 융합적 글로벌 헬스케어 제휴 협약 체결 2014.01 이탈리아 Arrow Diagnostics 인수 2014.03 MuDT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2014.08 동시다중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술 TOCE™ 미국 특허 등록 2014.10 중동 법인 Seegene Middle East FZE 설립 2015.03 미국 법인 Seegene Technologies, Inc. 설립 2015.07 캐나다 법인 Seegene Canada, Inc. 설립	2016.04 멕시코 합작법인 Ampilbio-Seegene Diagnostics 설립 2017.08 독일 법인 Seegene Germany GmbH 설립 2019.06 브라질 법인 SEEGENE DO BRASIL COMERCIO DE PRODUTOS MEDICOS E HOSPITALARES LTDA. 설립 2019.12 멕시코 법인 Seegene Mexico, S.A.P.I DE C.V. 출범 2020.04 Allplex 2019-nCoV Assay 미국 FDA 긴급승인 2021.10 콜롬비아 법인 Seegene Colombia S.A.S. 설립 2022.04 남아공 지점 Seegene South Africa Branch 설립 2023.09 Springer Nature와 진단시약 개발 공동프로젝트 OIP 공동 진행 2024.01 브렉스 인수 2024.01 기술공유사업을 위한 Microsoft와의 전략적 협업 추진 2024.06 펜타웍스 인수	2024.10 기술공유사업 관련 이스라엘 및 스페인 New Co. 설립 계약 체결 2024.10 Microsoft, Springer Nature와 기술공유사업 파트너 라운드 테이블 개최 2025.02 단디메카 인수 2025.04 이스라엘 기술공유 합작법인 HYLABORATORIES-SEEGENE LTD 설립 2025.05 스페인 기술공유 합작법인 WERFEN-SEEGENE, S.L. 설립 2025.06 미국 법인 SEEGENE TECHNOLOGIES, INC., SEEGENE CURECA, INC. 설립 2025.07 STAgara 출시 2025.07 CURECA 공개 2025.10 프랑스 법인 SEEGENE FRANCE 설립 2026.05 Allplex MDRO Assay 유럽 출시 2026.06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신규 편입 2026.07 Allplex HSV-1&2/VZV/MPXV Assay 미국 FDA 긴급승인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분자진단 시약 사업 (2025년 매출 비중: 78.9%)

동사는 자체 다중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감염성 질환을 한 번에 검사하는 신드로믹 PCR 진단키트와 핵산 추출시약을 공급하며, 비호흡기 검사군 확대와 핵심 원재료 내재화를 추진 중

동사의 분자진단 시약 사업은 환자 검체에서 병원체의 유전물질을 검출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진단 키트와 검사 전처리에 사용되는 핵산 추출시약으로 구성된다. 주력 제품군인 'Allplex'는 **호흡기 감염증, 소화기 감염증, 성매개 감염증,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약제내성, 코로나19 감염** 등 감염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단일 병원체를 검사하는 방식과 달리, 유사한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의 원인 병원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신드로믹 검사**'가 제품 설계의 기본 방향이다. 동사의 제품 목록에는 진단시약뿐 아니라 'STARMag' 계열의 핵산 추출키트도 포함되어 있어 검체 추출부터 PCR 검사까지 필요한 소모품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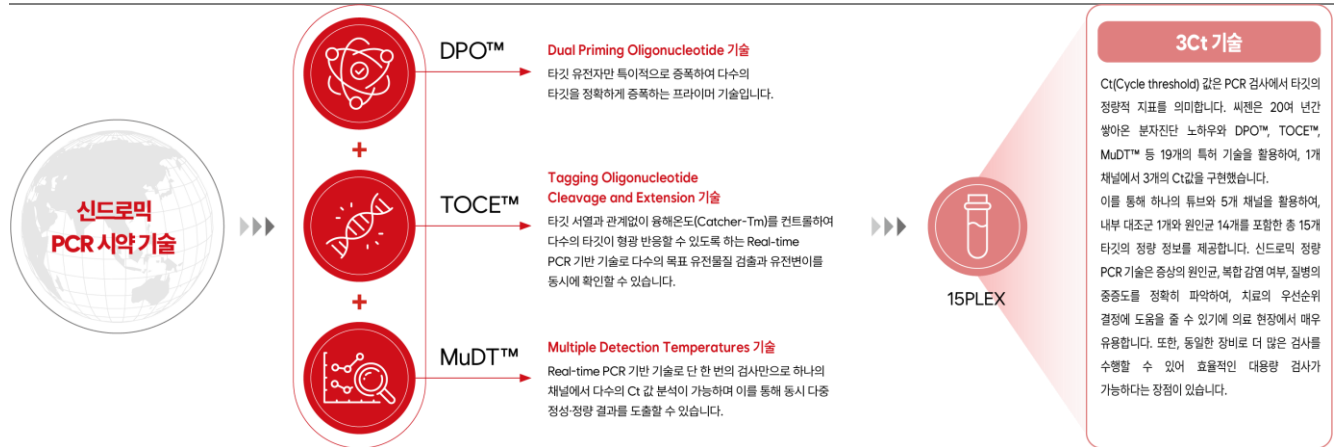
진단시약 포트폴리오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사 시약의 기술적 기반은 DPO(Dual Priming Oligonucleotide), TOCE(Tagging Oligonucleotide Cleavage and Extension), MuDT(Multiple Detection Temperatures) 및 3Ct(Cycle threshold) 등 자체 개발한 다중진단 기술이다. DPO는 다중 PCR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적 증폭을 줄이는 프라이머 기술이며, TOCE는 단일 반응에서 복수의 표적을 구분하도록 설계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호 생성 기술이다. MuDT와 3Ct는 하나의 형광 채널에서 복수 표적의 개별 Ct값을 산출하는 기술로, 3Ct 기준 단일 튜브에서 내부대조군을 포함해 최대 15개 표적을 구분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동사는 다수의 잠재적 원인 병원체를 동시에 확인하고, 각 표적의 상대적인 정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신드로믹 PCR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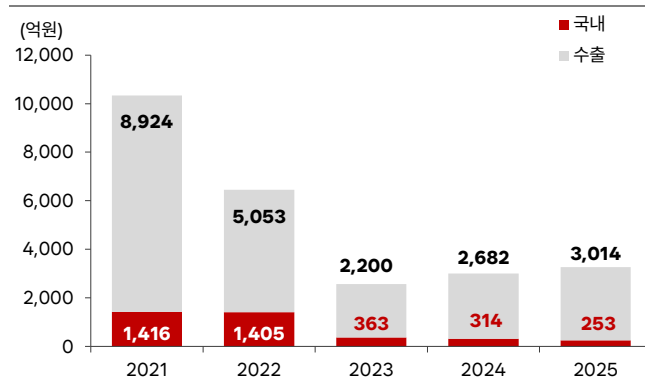
핵심기술: 신드로믹 PCR 신약 기술 소개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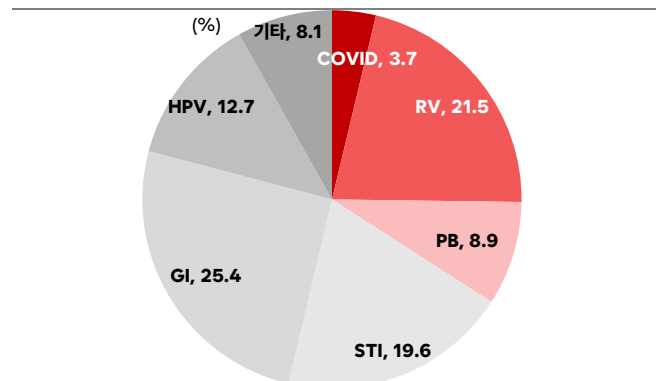
제품 개발 방향은 검사 대상 질환과 병원체 범위를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고, 호흡기 감염증 중심의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소화기, HPV, 성매개 감염증 및 항생제 내성 영역으로 검사군을 넓히고 있으며, PCR 효소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 핵심 원재료의 자체 개발 및 생산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분자진단 시약 매출 추이 (연결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진단 시약별 매출 비중 (2025년)



주: RV Respiratory Virus(호흡기 바이러스), PB: PneumoBacter(폐렴 원인 세균),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성매개감염), GI: Gastrointestinal(소화기/위장관 감염), HPV: Human Papillomavirus(인유두종바이러스),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분자진단 장비 사업 (2025년 매출 비중: 16.1%)

분자진단 각 공정을 자동화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기존 개별 장비 중심에서 'STARlet-AIOS'와 차세대 'CURECA'를 통한 PCR 검사 전 과정의 통합 자동화로 사업 범위를 확대 중

동사의 장비 사업은 분자진단 검사에 필요한 전처리, 핵산 추출, PCR 반응액 분주, 유전자 증폭 및 결과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요 제품은 검체의 핵산 추출과 PCR 준비 과정을 수행하는 Seegene 'STARlet' 및 'NIMBUS', 소규모 검사실용 핵산 추출장비 'SEEPREP32', 실시간 PCR 증폭장비 'CFX96 Dx', 검체 용기의 개폐를 자동화하는 'VCMS' 등이다. 동사의 장비는 독립적인 단일 기기보다는 추출 시약, 'Allplex' 진단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검사 흐름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검사 결과의 자동 판독과 장비 운용에는 Seegene 'Viewer' 및 Seegene 'Launcher'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방향은 개별 검사 공정을 자동화하는 장비에서 검사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형 워크플로로 확장 되는 형태인데, 'STARlet-AIOS'는 검체 투입 이후 핵산 추출, PCR set-up, 플레이트 이동과 실링, 실시간 PCR 및 결과 분석까지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처리한다. 면봉, 혈액, 소변, 객담 등 다양한 검체를 지원하며, 배치 방식으로 운영 되고 검사실정보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NIMBUS'는 핵산 추출과 PCR 분주에 초점을 맞춘 중형 모듈식 장비로,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검사실에서 기존 PCR 장비와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SEEPREP32'는 상대적으로 처리 규모가 작은 검사실을 대상으로 하며, 'CFX96 Dx'는 준비된 PCR 플레이트의 유전자 증폭과 실시간 정량 분석을 담당 한다. 장비별 기능을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어 검사실의 규모, 기존 장비 구성 및 처리량에 따라 워크플로를 조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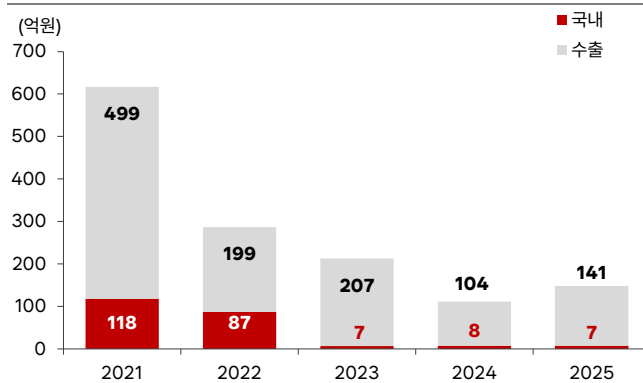
진단 장비 포트폴리오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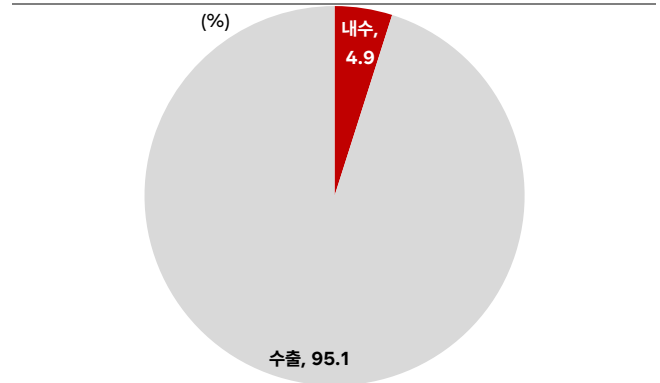
차세대 자동화 장비로 개발 중인 'CURECA'는 검체 전처리부터 핵산 추출, 유전자 증폭 및 결과 분석까지 PCR 검사 전 과정을 모듈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회사는 2026년 ESCMID(Europ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Global 학회에서 개선된 'CURECA' 모델과 실제 검사실 적용을 전제로 한 자동화 워크플로를 공개했으며, 현재 단계의 추진 계획은 의료기관 및 검사실과의 적용 협의, 파일럿 운영과 검증을 거쳐 실제 검사환경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자진단 장비 매출 추이 (연결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자진단 장비 내수/수출 매출 비중 (2025)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중장기 사업

‘STAgora’는 신드로믹 PCR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 및 시각화해 병원체별 양성률과 동시 감염 및 지역별 확산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조기 경보와 AI 기반 예측 기능까지 제공하는 감염병 데이터 플랫폼

STAgora

‘STAgora’는 PCR 검사에서 생성되는 통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시각화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데, 동사의 신드로믹 PCR은 하나의 검사에서 여러 병원체와 동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단일 병원체 검사보다 다양한 감염 정보를 생성한다. ‘STAgora’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병원체별 양성률, 단독 감염과 동시 감염 패턴, 기간별 감염 추이 및 지역 간 차이를 시각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플랫폼 명칭은 검사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의 ‘Agora’와 통계 분석을 의미하는 ‘Statistics’를 결합한 것이다.

동사가 공개한 개발 방향은 네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현재 공개된 기본 기능은 검사 결과의 자동 집계와 지역별 시각화, 신드로믹 검사에 기반한 복합 감염 분석 및 통계 리포트 제공이다. 향후에는 일정 수준을 벗어난 병원체 증가를 탐지하는 조기 경보 기능과 AI 및 통계 기반의 감염 확산 패턴 분석 및 예측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2026년 ESCMID Global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모사한 대시보드와 터치스크린 기반 체험 시스템이 공개됐으며, 국내외 시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다.

동사는 배양검사를 보완하는

신속 PCR 선별검사를 기반으로 주요 다제내성균과 내성유전자를 검출하는 HAI 진단 포트폴리오를 ‘Enter-DR’에서 ‘MDRO’ 및 ‘MRSA’로 확대 중

HAI(MDRO)

의료관련감염 HAI(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은 입원이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며, 다제내성균 MDRO(MultiDrug-Resistant Organisms)은 복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병원체를 뜻한다. 기존 병원 감염관리는 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주로 의존하지만, 결과 확인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동사는 환자 검체에서 주요 병원체와 내성유전자를 PCR로 직접 검출해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성균 보유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자 격리와 추가 검사 등 초기 감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HAI 진단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유전형 기반 PCR 검사는 표현형 감수성 검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신속 선별과 감염관리 판단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검사실 운영 환경에 따라 당일 결과 보고가 가능하다.

기존 제품인 ‘Allplex Enter-DR Assay’는 KPC, NDM, VIM, IMP, OXA-48, CTX-M, VanA 및 VanB 등 주요 내성유전자를 동시에 검출해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ESBL(Extended-Spectrum Beta-

Lactamase) 생성 장내세균 및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관련 내성을 선별한다. 여기에 2026년 유럽에서 출시된 'Allplex MDRO Assay'가 추가되면서 장내 내성균뿐 아니라 병원 감염관리의 주요 대상인 고위험 MDRO와 관련 내성유전자를 한 번의 검사에서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됐다. 해당 제품들은 'STARlet', 'NIMBUS', 'STARlet-AIOS' 등 동사의 자동화 장비와 연동할 수 있으며, 동사는 추가적으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을 검출하는 'Allplex MRSA Assay'를 개발 중이다. 또한 스프링거 네이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HAI 및 항생제 내성 관련 진단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속 회사

2026년 3월 31일 기준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15개이며, 거점별 해외영업 법인 9개와 본업 지원 등을 위한 자회사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이 중 브라질 해외법인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에 대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SEEGENE CURECA, INC는 동사의 차세대 진단시스템 CURECA의 연구개발 및 글로벌 사업, 현지 지원 등을 위한 전담 법인으로, 2025년 설립되었다. Seegene Technologies, INC. 또한 2025년 설립되었으며, 기술공유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이다.

브렉스는 2019년 설립된 UX/UI 기획 및 설계 기업으로, 2024년 동사의 자회사로 인수되었다. 동사의 디지털 전환 DX 및 기술공유사업 관련 UX/UI를 지원하고 있다.

펜타웍스는 2015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2024년 동사의 자회사로 인수되었다. 인수 이후 브렉스와 연계한 신사업 프로젝트 참여 및 진단사업 고객용 웹서비스 고도화를 담당하고 있다.

단디메카는 2010년 설립된 로보틱스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2025년 동사의 자회사로 인수되었다. 동사는 단디메카의 하드웨어 및 장비 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진단장비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종속 회사(2026.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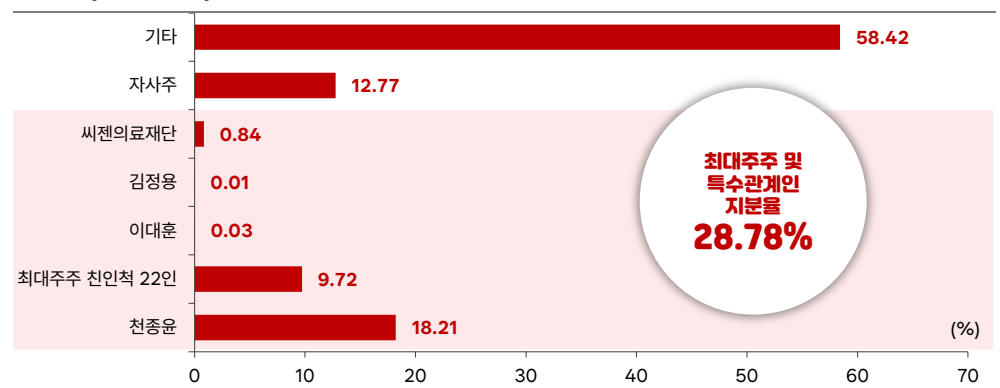
기업명	소재지	지분율(%)	자산(억원)	주요사업
Arrow Diagnostics s.r.l	이탈리아	100	1,096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Middle East (FZE)	아랍에미리트	100	139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Medical Equipment Trading LLC	아랍에미리트	100	-	FZE 자회사(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Seegene USA, Inc.	미국	100	125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Canada Inc.	캐나다	100	155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Germany GmbH	독일	100	368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do Brasil comercio de produtos medicos e hospitalares LTDA.	브라질	98	274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Mexico S.A.P.I de C.V.	멕시코	100	114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Colombia S.A.S.	콜롬비아	100	2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FRANCE	프랑스	100	46	해외 영업 법인
SEEGENE TECHNOLOGIES, INC.	미국	100	15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SEEGENE CURECA, INC.	미국	100	15	장비의 공급
브렉스	대한민국	100	35	UX/UI 디자인 설계
펜타웍스	대한민국	100	49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단디메카	대한민국	100	54	장비개발 및 공급

주: 자산규모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2026년 3월 31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천종윤 대표이사로, 총 9,508,880주를 보유해 18.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뒤이어 최대주주의 친인척 22인이 특수관계인으로써 총 9.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기이사 이대훈이 0.03%, 김정용이 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0.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총합은 28.78%이다. 한편 동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670,219주로 전체 주식 수의 12.77%에 해당한다.

주주 구성(2026.03.31)



자료: 씨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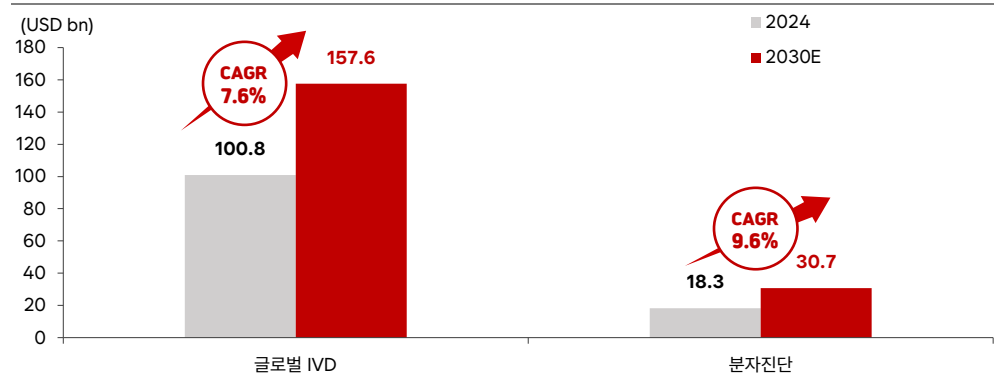
1 체외진단 산업

체외진단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분자진단 인프라가 확대된 이후, 성장축이 비코로나 검사로 이동 중. 향후에는 멀티플렉스 PCR 기반 신드로믹 검사와 자동화 시스템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검사 메뉴의 다양성, 장비당 검사량, 반복 시약 매출 및 데이터 플랫폼 역량이 산업 내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

체외진단 IVD(In Vitro Diagnostics)은 혈액, 조직, 소변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체외진단 시장은 임상화학, 면역진단, 혈액학, 분자진단, 미생물진단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분자진단은 병원체의 DNA 또는 RNA를 직접 검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면역진단 대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제공한다. 분자진단은 과거 특정 감염병을 확인하는 보조적 검사로 활용됐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대규모 검사 인프라와 의료진의 활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감염병 진단의 주요 검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PCR 장비와 분자진단 검사시설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감소하면서 산업의 성장축은 단일 감염병 검사에서 일상적인 비코로나 검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흡기 감염뿐 아니라 소화기 감염, 성매개감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결핵, 약제내성 및 병원 내 감염 등 반복적인 검사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구축된 PCR 장비와 검사실 인프라는 다른 감염질환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분자진단 기업의 성장은 기존 장비 설치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코로나 진단시약의 판매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감시 강화 및 진단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2024년 1,008억달러에서 2030년 1,576억달러로 성장해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분자진단 시장은 183억달러에서 307억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자진단이 전체 체외진단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감염질환 검사의 고도화, 멀티플렉스 검사 확대, 검사 자동화 및 암 및 정밀의료 영역으로의 적용범위 확장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IVD 및 분자진단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자진단 시장의 주요 기술 변화는 단일 병원체 검사에서 멀티플렉스 PCR 기반의 신드로믹 검사로의 전환인데, 기존 검사 방식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병원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검사했으나,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과 같이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많은 질환에서는 원인을 신속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신드로믹 검사는 하나의 검체에서 여러 병원체를 동시에 검사해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제를 조기에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특히 호흡기 감염에서는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중 검사의 임상적 효용이 높다. 소화기 감염과 성매개감염에서도 증상만으로 원인 병원체를 구분하기 어려워 복수의 병원체를 동시에 검출하는 패널 검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검사실 입장에서도 여러 개의 단일 검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하나의 패널을 통해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체와 인력 사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반응에서 다수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멀티플렉스 기술과 다양한 검사 패널을 보유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주고 있다.

분자진단 산업은 진단시약과 검사장비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는데, 제조사는 PCR 장비와 핵산 추출장비를 의료기관 및 검사센터에 공급한 뒤, 해당 장비에서 사용되는 진단시약과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 장비 매출은 검사실의 설치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수익성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시약 판매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장비의 판매 대수뿐 아니라 장비당 검사 건수, 사용 가능한 진단시약의 종류, 비코로나 제품의 매출 비중이 분자진단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검사 메뉴가 다양할수록 의료기관은 하나의 장비를 통해 여러 질환을 검사할 수 있어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반대로 검사 가능한 시약의 종류가 제한적일 경우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충분한 시약 매출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분자진단 기업은 장비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호흡기, 소화기, 성매개감염, HPV 및 약제내성 등 다양한 검사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비 설치 이후 검사실 검증, 의료진 교육 및 정보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구축된 장비와 시약의 조합은 일정 수준의 고객 전환비용도 형성해주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검사 자동화 역시 산업 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 PCR 검사는 검체 전처리, 핵산 추출, 시약 분주, 유전자 증폭 및 결과 판독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수작업 비중이 높을수록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량 검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검사실 전문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검체 투입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통합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분자진단 장비의 경쟁 기준도 단순한 PCR 성능에서 전처리와 핵산 추출을 포함한 통합 수준, 시간당 처리 가능한 검체 수, 검사실 인력 절감 효과 및 정보시스템 연동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검사센터에서는 다수의 검체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처리량 장비가 중요하고, 중소형 의료기관에서는 검사 과정이 단순하고 운영이 쉬운 통합형 장비가 선호될 수 있다. 분자진단 기업에는 다양한 의료기관 환경에 맞는 자동화 장비를 확보하고, 기존 진단시약이 신규 장비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 간 호환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분자진단 산업은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진단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확장될 전망을 가지고 있고, 진단장비에서 생성되는 검사 결과를 병원과 지역 단위로 통합하면 특정 감염병의 증가, 지역별 유행 패턴 및 약제내성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의료진의 치료 결정뿐 아니라 병원 감염관리, 정부의 감염병 감시 및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어, 진단기업의 경쟁력은 시약의 정확도와 장비 성능을 넘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역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감염성 분자진단 시장의 주요 성장영역

세부시장	시장 특성	주요 성장요인	씨젠 사업과의 연결
호흡기 감염	시장 규모가 크지만 계절성과 유행 강도에 따라 변동	인플루엔자, RSV, 코로나19 동시 유행, 패널검사 보편화	Allplex 호흡기 패널, 기존 PCR 설치 기반 활용
소화기 감염	증상만으로 병원체 구분이 어려워 멀티플렉스 적합성이 높음	순차검사 축소, 검사시간 단축, 비호흡기 검사 확대	Allplex GI 패널을 통한 비코로나 매출 다변화
STI & HPV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검사 수요가 발생	국가 검진, 여성건강, 고위험 HPV 유전자형 확인	STI & HPV 중심의 안정적 시약 수요
HAI & MDRO	시장 형성 초기이나 임상적 필요성이 높음	항생제 내성 증가, 병원 감염관리 강화	병원체와 내성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하는 신규 패널
검사 자동화	검사실 인력 부족과 처리량 증가에 대응	전처리, 추출, PCR 과정의 통합	STARlet 계열 장비 및 CURECA 개발
진단 데이터	검사결과를 공중보건 및 감염관리 데이터로 확장	실시간 감염 추세와 지역별 유행 분석	STAgora를 통한 데이터 플랫폼 확장

주: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HPV: Human PapillomaVirus, HAI: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MDRO: MultiDrug-Resistant Organism,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와 같이 분자진단 산업은 코로나19 검사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 조정기를 지나, 비코로나 감염질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향후 시장은 단일 병원체 검사에서 멀티플렉스 기반 신드로믹 검사로, 수작업 중심의 검사에서 전 과정 자동화로, 개별 결과 제공에서 데이터 기반 감염병 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비코로나 진단시약 포트폴리오, 멀티플렉스 기술, 장비 설치 기반, 검사 자동화 및 진단데이터 활용 역량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이 중장기 경쟁우위를 점하기에 수월한 산업으로 고려된다.



투자포인트

1 비호흡기 시약의 구조적 성장, 코로나 이후 실적 기반의 질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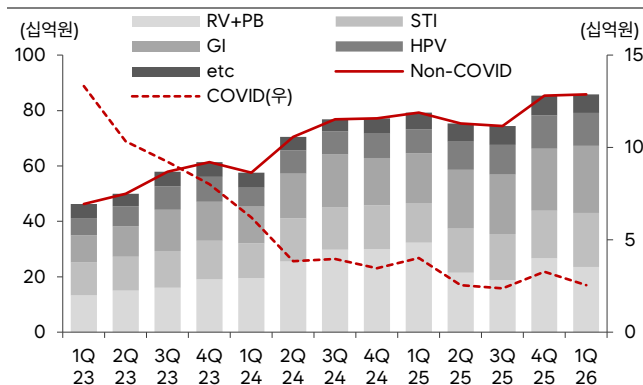
GI, HPV, STI를 중심으로 한
비호흡기 시약의 구조적 성장은
매출의 반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효율화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를 강화해, 동사의 실적
개선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최근 동사의 소화기 감염(GI, Gastrointestinal Infection), 인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성매개감염증(STI, Sexual Transmitted Infections)을 중심으로 한 **비호흡기 신드로믹 시약**의 **성장이 긍정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동사의 실적은 특정 감염병과 유행 강도에 크게 좌우됐으나, 최근에는 일상적인 검사 수요가 존재하는 비호흡기 제품군이 외형 성장을 주도하면서 사업 구조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Non-COVID 제품들에서 특정 제품이나 일회성 수주에 집중되지 않고 3개 주요 제품군이 동시에 성장을 주도해주고 있다.

비호흡기 시약의 성장은 **검사 방식의 전환과 적용 범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GI 감염은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이 유사한 증상을 유발해 기존 배양법이나 개별 검사만으로 원인을 신속하게 특정하기 어려운데, **신드로믹 PCR은 하나의 검사에서 복수의 원인 병원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치료 및 감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HPV 역시 단순 양성 여부를 넘어 개별 유형을 구분하는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입찰 시장이 제품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STI 분야에서도 무증상 감염과 복합 감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중 PCR 검사의 활용 근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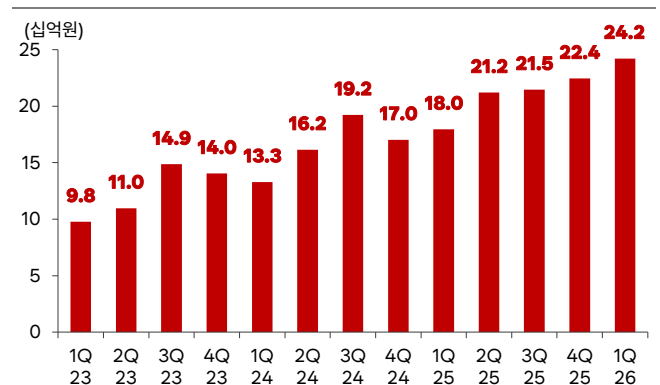
여기서 추가로 주목할 부분은 **비호흡기 시약이 장비 판매와 달리 검사량에 따라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라는 점인데, 검사실에 장비와 분석 워크플로우가 이미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많이 구축되어 있어, 이후에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Allplex' 제품을 추가로 도입할 수도 있고 또 신규 검사 메뉴가 늘어날수록 장비당 시약 사용량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속에서 **HPV, STI와 같이 호흡기 질환 유행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검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사의 실적 변동성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사의 매출 기반을 계절성 호흡기 제품에서 일상적 및 반복적 검사 수요가 존재하는 제품군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반복성이 높은 시약 매출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판관비와 연구개발비 효율화도 병행되고 있어, 매출 증가가 이익 개선으로 연결**되는 영업 레버리지 기반 역시 과거 대비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비호흡기 시약 매출이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26년 들어 성장 속도가 다시 높아졌다는 점에서 동사의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아 이를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진단시약 Non-COVID 및 COVID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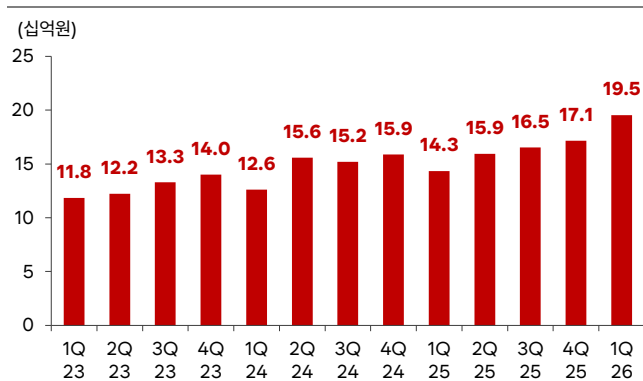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진단시약 소화기 감염(GI)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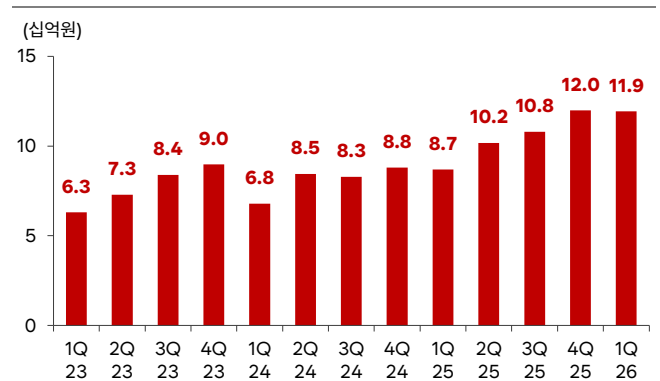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진단시약 성매개감염증(STI) 매출 추이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진단시약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매출 추이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럽 비호흡기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 제품, 영업 인프라

유럽 내 광범위한 IVDR 인증
포트폴리오와 현지 직접 영업망을
기반으로 비호흡기 제품의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내 검사
메뉴 확대가 반복적인 시약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동사의 주요 매출 시장인 유럽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규제, 제품, 영업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2026년 1분기 동사의 유럽 매출은 약 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5%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의 65.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GI, HPV, STI 제품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34.9%, 37.1%, 36.3% 증가해 유럽에서 수요가 높은 비호흡기 제품군이 전사 성장을 주도해주고 있다. 유럽은 단순히 동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을 넘어, 비호흡기 신드롬 PCR의 성장성이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핵심 시장이기도 하다.

유럽 시장에서 동사의 핵심 경쟁 기반은 **광범위한 IVDR(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인증 포트폴리오**인데, EU는 기존 체외진단기기 지침을 대체하는 IVDR을 도입해 체외진단 제품의 규제 체계를 강화해왔고, 유럽에서 제품을 지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사는 2023년 GI 8종, 여성질환 7종, 호흡기 5종, 결핵 4종, 뇌수막염 3종, HPV 2종 및 약제내성 1종 등 **총 58개 제품에 대해 IVDR 인증을 확보**했다. 2026년에는 의료관련감염 진단 제품인 'Allplex MDRO Assay'까지 IVDR 인증 후 유럽에서 출시하면서 제품 범위를 기존 GI, HPV, STI에서 병원 감염관리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여기서 IVD 인증을 단순한 품질 인증보다 **판매 가능한 검사 메뉴의 폭을 유지하는 진입 요건**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분자진단 검사실은 하나의 장비와 자동화 워크플로에서 여러 진단시약을 운용하기 때문에, **공급사가 다양한 질환군의 인증 제품을 보유할수록 고객 검사실에 추가 메뉴를 공급하기 용이**하다. 동사는 GI, HPV, STI, 호흡기, 결핵 및 약제내성 제품을 동일한 PCR 및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제공할 수 있어, **신규 고객 확보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 검사 패널을 추가 판매하는 방식의 성장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 외로도 동사는 **현지 판매법인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 대응력도 강화**되어 있는데, 동사는 기존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2025년 12월 프랑스 법인을 설립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분자진단 시장으로 평가되며, 특히 STI와 GI 분야의 검사 수요가 높은 곳이다. 대리점 중심의 판매에서는 제품 교육, 장비 유지보수, 고객 맞춤형 대응과 입찰 전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지 법인은 의료기관 및 검사실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확보하고 기술지원과 마케팅을 일원화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법인 설립은 동사의 성장 제품인 STI와 GI의 판매 지역을 확대하고, 현지 입찰과 신규 고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업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사는 이미 신드로믹 PCR의 성장성과 증가하는 수요가 확인된 유럽 비호흡기 시장에서 광범위한 IVD 제품군과 현지 직접 영업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 내 검사 메뉴 확대가 반복적인 시약 매출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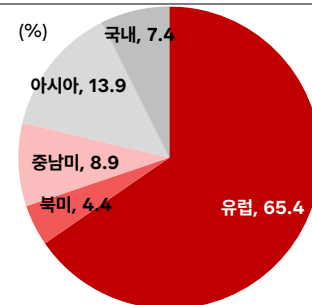
지역별 매출 규모

(단위: 십억원)

	1Q26	4Q25	1Q25
유럽	84.5	80.1	71.9
북미	5.6	6.2	5.3
중남미	11.6	12.9	9.3
아시아	17.9	21.9	19.7
국내	9.5	9.6	9.7
합계	129.1	130.6	116.0

주: 1) 아시아에는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 2) 국내 매출은 자회사 포함, 3) 지역별 매출은 해당 지역 내 판매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 비중 (26Q1 기준)



자료: 씨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2025년은 Non-COVID 및
비호흡기 시약의 성장과
원가&비용 구조 개선이 맞물리며
외형 성장과 흑자전환을 동시에
달성한 실적 정상화의 원년

동사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4,742억원(+14.5% YoY)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345억원으로 2024년 165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도 483억원으로 흑자전환**(전년 88억원 손실)하면서 코로나19 진단 수요 감소 이후 이어졌던 수익성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외형 성장은 Non-COVID 시약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반했는데, 2025년 Non-COVID 제품 매출은 3,145억원(+11.5% YoY)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GI, HPV 및 STI를 포함한 비호흡기 제품 매출은 21.3% 증가한 2,152억원으로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특정 감염병 유행에 의존했던 팬데믹 당시와 달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검사 수요가 존재하는 비호흡기 제품이 성장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매출 구조의 질적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익성 개선은 매출 증가와 함께 원가율(제품 믹스 효과 & 원재료 내재화)과 판매비용(연구개발비 감소) 개선이 함께 나타났**으며, 2025년은 단순한 외형 회복을 넘어 비호흡기 시약의 성장과 비용 구조 개선이 실제 **이익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해로 볼 수 있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은 GI, HPV, STI 중심의
비호흡기 시약 성장과 원가&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며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익 증가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회복이 기대되는 해

동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291억원(+11.3% YoY), 영업이익은 236억원(+58.6% YoY)을 기록했다. 호흡기 제품은 계절적 수요 둔화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비호흡기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제품군별로는 GI 34.9%, HPV 37.1%, STI 36.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익 개선에는 외형 성장과 함께 비용 효율화가 기여했고, 판매비와 연구개발비 합계는 631억원(-1.3%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안정적인 비용 관리에 힘입어 매출 증가분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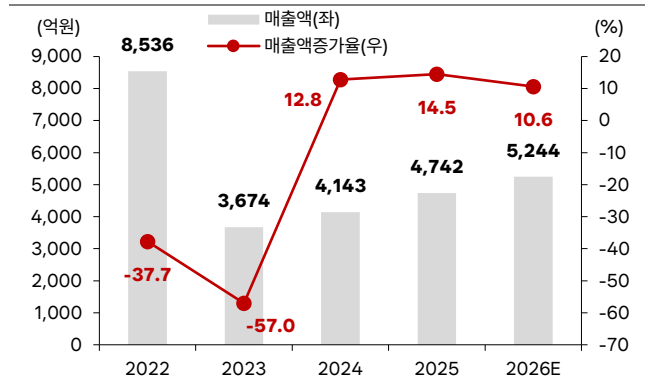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매출액을 1,297억원(+13.7% YoY), 영업이익을 191억원(+516.1% YoY)으로 추정되는데, 계절적인 호흡기 제품 매출 감소는 예상되나 GI, HPV, STI 등 비호흡기 제품의 성장이 이를 상쇄하면서 견조한 외형이 유지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약 매출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도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년 동기에는 일부 지역의 호흡기 감염 유행 종료로 고수익성 호흡기 진단시약 매출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장비 매출 비중은 증가했던 만큼, 낮은 기저로 인해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2026년 연결 매출액은 5,244억원(+10.6% YoY), 영업이익은 765억원(+121.4% YoY),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883억원(+82.8% YoY)**으로 전망한다. 예상 영업이익률(OPM)은 14.6%로 2025년 7.3% 대비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GI, HPV, STI 진단 시약의 두 자릿수 성장과 하반기 호흡기 제품의 계절적 수요 회복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익 개선은 외형 성장뿐 아니라 1분기와 유사한 원가율 및 판매비용 개선 기조에 기반할 전망이다. 비호흡기 시약은 검사량에 따라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으로, 매출 증가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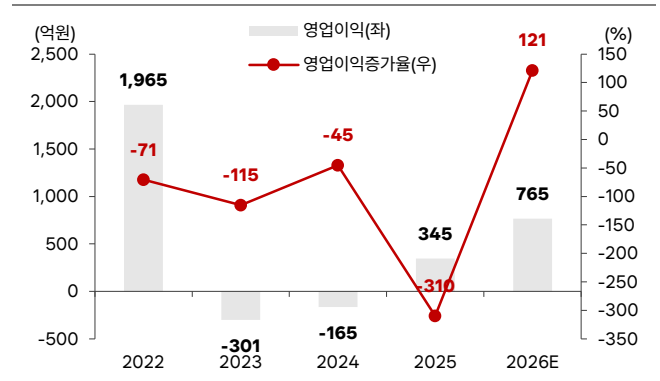
제한적이라 매출원가율 관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함께 판관비와 연구개발비 관리가 1H와 같이 2H에도 지속될 경우 영업 레버리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은 비호흡기 시약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원가 및 비용 효율화가 결합되면서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674	4,143	4,742	5,244
증가율 (%)	-57.0	12.8	14.5	10.6
Non-COVID	2,155	2,821	3,145	3,492
COVID	409	175	122	102
장비	793	780	1,049	1,196
추출시약	317	367	426	454
판매관리비	2,420	2,551	2,693	2,713
판관비율(%)	65.9	61.6	56.8	51.7
영업이익	-301	-165	345	765
영업이익률 (%)	-8.2	-4.0	7.3	14.6
증가율 (%)	적전	적지	흑전	121.4
세전계속사업이익	-14	-94	564	1,084
증가율 (%)	적전	적지	흑전	92.0
당기순이익	7	-87	484	886
순이익률 (%)	0.2	-2.1	10.2	16.9
증가율 (%)	-99.6	적전	흑전	82.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7	-88	483	88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비호흡기 중심의 체질 개선 반영 시 기업가치 상향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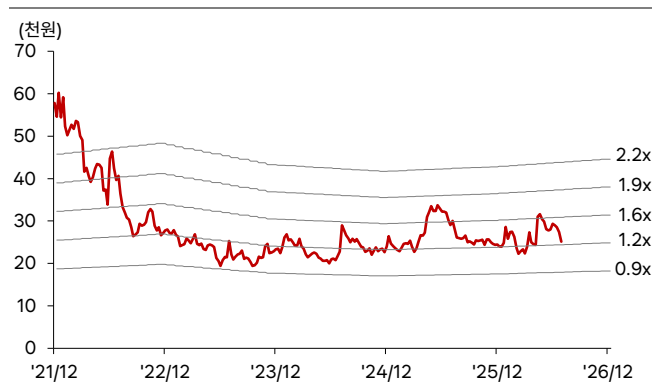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엔데믹 이후
흑자전환의 확인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턴어라운드 이후
본격적인 이익구조 개선이
가능함을 증명한다면 추가적인
기업가치 상향 여지 보유

동사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BR 1.3x, PSR 2.7x 수준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2025년 흑자전환 이후 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실적 변동과 당기순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최근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PER보다는 매출 성장성과 자본가치 대비 기업가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PSR과 PBR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근 3개년 밸류에이션 밴드는 PBR 0.8~1.6x, 평균 1.1x, PSR 1.2~4.9x, 평균 2.7x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다. 2026년 예상 PBR 1.3x는 과거 밴드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며, PSR 2.7x는 과거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위치해 있다. 표면적으로는 밴드 내 중간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3개년 밴드는 엔데믹 전환 이후 형성된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당시에는 COVID 진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동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엔데믹 이후 진단 수요가 빠르게 감소했고, 2023~2024년에는 팬데믹 특수 소멸에 따른 실적 감소 및 영업적자 지속으로 추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며 밸류에이션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25년 Non-COVID, 비호흡기 중심의 성장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에 **평년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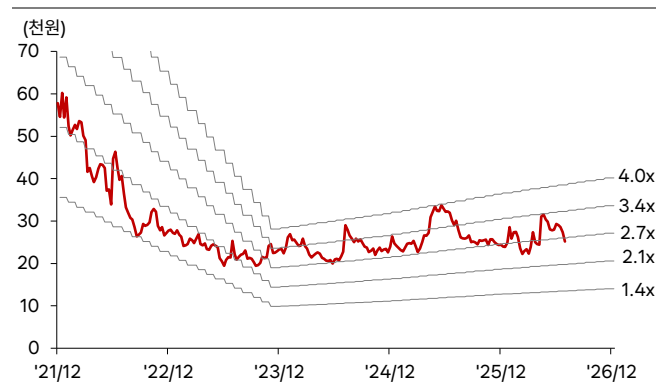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의 PBR, PSR은 실적 정상화 확인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에 가까우며, 비호흡기 신드로믹 시약의 구조적 성장과 이에 따른 이익 체력 개선 가능성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비호흡기 매출은 YoY +32.6% 증가했는데, 이러한 비호흡기 시약은 제품 특성상 매출의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팬데믹 특수 시기의 일회성 호실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GI, HPV, STI 등 비호흡기 신드로믹 제품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유럽 중심의 신규 고객 확보 및 검사 라인업 확대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될 경우,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단순한 실적 회복 구간을 넘어 **비호흡기와 신규 사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을 반영하며 기업가치가 상향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씨젠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씨젠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감염성 질환 유행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있으나, 라인업 다양화 및 비호흡기 제품군의 비중 확대 시 리스크 개선이 가능

동사는 독자적인 신드로믹 PCR 기술을 기반으로 호흡기, 소화기(GI), 성매개감염(STI), HPV 등 다양한 질환군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 GI, HPV, STI 등 비호흡기 제품군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매출의 일정 부분이 여전히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강도와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염성 질환의 유행 여부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검사 대상 질환의 계절성에 따른 분기별 실적 변동인데, 2026년 1분기에도 호흡기 제품군인 RV와 PB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에 일부 부담으로 작용했다. GI, HPV, STI 등 비호흡기 제품의 성장이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완했지만, 비호흡기 제품군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강도가 평년보다 낮을 경우 단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날씨와 감염병 발병률은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 변수인 만큼, 호흡기 제품군의 분기별 매출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이러한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실제로 호흡기 관련 RV와 PB 제품의 매출 비중은 2024년 25.3%에서 2026년 1분기 18.2%로 낮아졌으며, GI, HPV, STI 등 비호흡기 제품군이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비호흡기 제품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검사 수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감염병 유행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장기적으로 실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비호흡기 제품군의 성장세가 호흡기 매출의 계절적 변동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되는지와 함께, 특정 분기의 실적 둔화가 구조적인 수요 약화인지 일시적인 유행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8,536	3,674	4,143	4,742	5,244
증가율(%)	-37.7	-57.0	12.8	14.5	10.6
매출원가	3,575	1,555	1,756	1,704	1,766
매출원가율(%)	41.9	42.3	42.4	35.9	33.7
매출총이익	4,961	2,119	2,386	3,039	3,478
매출이익률(%)	58.1	57.7	57.6	64.1	66.3
판매관리비	2,996	2,420	2,551	2,693	2,713
판매비율(%)	35.1	65.9	61.6	56.8	51.7
EBITDA	2,544	357	547	1,046	1,343
EBITDA 이익률(%)	29.8	9.7	13.2	22.0	25.6
증가율(%)	-63.8	-86.0	53.4	91.2	28.4
영업이익	1,965	-301	-165	345	765
영업이익률(%)	23.0	-8.2	-4.0	7.3	14.6
증가율(%)	-70.5	적전	적지	흑전	121.4
영업외손익	202	254	7	201	301
금융수익	668	399	489	461	564
금융비용	306	158	165	203	208
기타영업외손익	-160	13	-317	-57	-55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89	32	64	18	18
세전계속사업이익	2,256	-14	-94	564	1,084
증가율(%)	-67.3	적전	적지	흑전	92.0
법인세비용	431	-21	-7	80	198
계속사업이익	1,824	7	-87	484	88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824	7	-87	484	886
당기순이익률(%)	21.4	0.2	-2.1	10.2	16.9
증가율(%)	-66.1	-99.6	적전	흑전	82.8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1,821	7	-88	483	88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190	949	854	1,493	1,509
당기순이익	1,824	7	-87	484	886
유형자산 상각비	549	608	656	641	533
무형자산 상각비	31	49	55	59	45
외환손익	35	40	47	44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787	27	-140	105	70
기타	-36	218	323	160	-2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40	-2,783	347	-1,332	-16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90	-413	31	-575	16
유형자산의 감소	5	4	4	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33	-252	-400	-374	-394
기타	-122	-2,122	712	-385	21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45	-1,567	-637	-640	-457
차입금의 증가(감소)	-14	-55	-9	-17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511	-381	-369	-369	-458
기타	-920	-1,131	-259	-254	0
기타현금흐름	187	91	130	137	-256
현금의증가(감소)	892	-3,310	694	-341	632
기초현금	4,321	5,213	1,903	2,597	2,256
기말현금	5,213	1,903	2,597	2,256	2,887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9,025	7,835	7,578	7,988	8,559
현금성자산	5,213	1,903	2,597	2,256	2,887
단기투자자산	839	3,318	2,646	3,622	3,493
매출채권	1,086	856	879	976	1,050
재고자산	1,582	1,376	1,094	822	806
기타유동자산	305	382	362	313	323
비유동자산	4,883	4,680	4,590	4,370	4,365
유형자산	2,579	2,423	2,267	2,227	2,226
무형자산	244	274	330	286	280
투자자산	395	445	600	552	554
기타비유동자산	1,665	1,538	1,393	1,305	1,305
자산총계	13,908	12,515	12,169	12,358	12,925
유동부채	1,702	1,622	1,614	1,708	1,872
단기차입금	395	350	374	350	355
매입채무	244	258	195	156	252
기타유동부채	1,063	1,014	1,045	1,202	1,265
비유동부채	703	589	624	492	464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44	37	8	2	2
기타비유동부채	659	552	616	490	462
부채총계	2,405	2,211	2,238	2,200	2,337
자배주주지분	11,478	10,277	9,902	10,154	10,581
자본금	261	261	261	261	261
자본잉여금	627	627	627	654	654
자본조정 등	-1,055	-1,928	-1,882	-1,881	-1,88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4	77	131	237	237
이익잉여금	11,630	11,239	10,765	10,883	11,310
자본총계	11,503	10,304	9,931	10,158	10,588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7.8	1,787.7	N/A	25.7	15.9
P/B(배)	1.2	1.2	1.2	1.2	1.3
P/S(배)	1.7	3.3	2.9	2.6	2.7
EV/EBITDA(배)	3.8	22.9	14.9	7.5	6.7
배당수익률(%)	2.9	3.5	3.5	4.2	3.7
EPS(원)	3,488	13	-168	924	1,690
BPS(원)	21,977	19,678	18,960	19,443	20,261
SPS(원)	16,344	7,034	7,932	9,080	10,041
DPS(원)	800	800	800	1,000	1,000
수익성(%)					
ROE	16.3	0.1	-0.9	4.8	8.5
ROA	12.7	0.1	-0.7	4.0	7.0
ROIC	23.9	1.6	-2.5	8.9	15.6
안정성(%)					
유동비율	530.3	483.2	469.4	467.8	457.2
부채비율	20.9	21.5	22.5	21.7	22.1
순차입금비율	-38.8	-36.9	-38.2	-45.0	-47.9
이자보상배율	39.1	-5.3	-2.8	7.7	14.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3	0.3	0.4	0.4
매출채권회전율	3.8	3.8	4.8	5.1	5.2
재고자산회전율	4.6	2.5	3.4	5.0	6.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씨젠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04	씨젠-코로나 이후의 씨젠, 비호흡기로 다시 쓰는 성장 공식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